

미노시 우다쓰 보전지구

우다쓰 보전지구는 동서로 뻗은 커다란 두 길과 남북으로 뻗은 좁은 네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길들은 전선이나 현대적인 간판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옛날 그대로의 거리로서 정비되어 있습니다.

방화(防火)와 부의 상징

이 지역의 상인 주택은 에도 시대(1603~1867년) 후기부터 메이지 시대(1868~1912년) 초기에 걸쳐 지어진 건물로, 대부분의 집에는 이웃집과 경계에 있는, 지붕 높이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우다쓰'라고 불리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다쓰는 지붕을 타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불에 잘 타지 않는 회반죽을 칠하고 그 위에 기와를 얹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목조 가옥이 많아서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일대의 가옥들로 순식간에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다쓰를 설치한 집을 짓는 데는 돈이 들었기 때문에 점차 우다쓰는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노 지방의 유복한 종이 상인들은 앞다투어 더 높고 더 호화롭게 장식한 우다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우다쓰 위에 얹는 기와로는 가문의 문장을 새긴 기와나 무서운 형상의 귀와(鬼瓦) 등이 있었습니다. 귀와는 화재, 벼락, 악령 등으로부터 집을 지킨다고 하며, 우다쓰 보전지구에서는 각각의 귀와가 특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다쓰가 모든 상인 주택에 각각 설치된 것은 아니며,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던 집들은 하나의 우다쓰로 그 양쪽의 두 집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히라타 집안과 후루카와 집안의 우다쓰는 서로 다르게 장식한 우다쓰가 바로 곁에 배치되어 있는 드문 경우입니다. 우다쓰를 설치한 미노의 건축물은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인 주택

우다쓰 보전지구의 2층 상인 주택은 1층 앞쪽에 점포가 있고, 안쪽과 2층에 가족과 종업원의 거주 공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도로에 면한 폭 넓이를 기준으로 삼아 지조(토지 수익에 대해 매기는 조세)를 산정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인 주택이 안쪽까지 이어지는 좁고 긴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뜰, 격자창, 지붕창 구조는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고 공기 순환을 촉진함과 더불어 실내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 대부분의 상인 주택 뒤쪽은 지금도 점포 겸 주택으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구 이마이 가문 주택'은 전부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구 이마이 가문 주택은 미노의 상인 주택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대대로 존장을 받았던 이마이 집안의 큰 재력과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772년에 지어진 고사카 주조장에서는 지금도 술 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짐수레로 짐을 나를 수 있도록 건물 안쪽까지 이어지는 벽돌을 깔 바닥과 안뜰, 현재는 아트갤러리로 사용되고 있는 창고 등 당시의 면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 정면의 매점에서는 옛 모습을 찍은 사진과 자료를 보거나 일본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